

아직도 청년입니다

나에게 청년 시절은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생활에서부터 교회 생활까지 어려웠던 일보다는 즐겁고 활발했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한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을 와서 이제 조금 익숙하게 된 생활을 토대로 여기저기를 다니며 어른이 되어가던 때였다. 그 중에서 교회 생활은 나에게 중심이었다. 아무리 고단한 토요일을 보냈어도 주일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별일도 아닌 것을 큰일과 같이 여기면서 기도하던 때도 있었고, 그리 새롭지 않았던 찬양 한곡을 불러도 눈물로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을 했던 때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었고 그 부르심에 온 인생을 드리고자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준비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런데 실은 지금도 늘 준비하고 있지만, 그 당시 적어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다음 단계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나는 가정을 갖게 되었고 목사라는 직분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청년시절이라는 기간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나의 가슴에 있었던 일들을 위하여 지금도 숨 쉬고 그 당시 준비한 것들을 토대로 일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힘은 이전과 같지 않지만 마음에 중심은 청년과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육신의 나이와 마음에 나이가 다르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가슴에는 청년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4-5절)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육신의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매일이 청년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같이 타올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불러주신 부르심으로 타오르는 것이다. 육신의 나이를 자랑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오직 매일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청년과 같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 모두는 과정 중이다. 천국으로 가는 청년의 시간이다. 어른도 없고 늙은이도 없다.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새롭게 또한 청년에서 더 이상 늙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니 교회는 늘 뜨겁게 불타오르는 곳이 되고 만다. 예배가 그렇게 뜨거워지고 기도가 불타오르며 찬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늙은이 행세를 그만하고 푸르고 새로운 헌신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다.